

타워링 인페르노

Towering Inferno

강 혁 / 경성대 건축도시 공학부 교수

by Khang Hyuk

한 때 재난을 주제로 다룬 영화(disaster movie)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다. 아카데미상을 탄 포세이돈 어드벤처같은 영화가 대표적인 예인데, 대개가 절대 절명의 재난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성, 그리고 운명과 운감하게 맞서 싸우는 인간을 그린 휴먼 드라마들이었다. 그 중에 하나가 타워링 인페르노(Towering Inferno)로 우리 말로는 '하늘높이 솟아오른 지옥' 짬으로 번역해야 될 것이다.(우리나라에선 그냥 타워링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다.) 초고층 건물이 대형 화재에 휩싸이면서 꼭대기에서 벌어지던 호화 파티에 참석했던 인간 군상이 겪는 참상의 이야기이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자본을 들였고 몇몇 극적인 장면이 인상깊었지만 썩 잘 만든 영화는 아니었다고 기억된다. 재난 영화가 그렇듯이 마지막에 지혜롭게 화재를 극복하고 인간애를 다시 확인한다는 이야기이다. 화재 원인으로는 건축가의 설계를 준수하지 않고 불량 재료를 쓴 설비업자의 부정이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동원되었다. 오래 전이라 뚜렷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거기에 이런 요지의 말이 나온다. 현대 기술 문명의 총화인 초고층 빌딩이 저렇게 화염에 휩싸이고 거대한 참화를 빚은 것은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그런데 영화에서 보았던 초고층 건물의 화재에 비할 바 없는 대 참사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다. 지난 11일 오전 미국의 심장 뉴욕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인 세계무역센터(WTC)가 테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고 순식간에 무너진 사건이었다. 영화에서나 가능했었을 일이 실제 상황으로, 그것도 세계의 중심인 뉴욕 맨하탄에서 일어난 데 대해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러나 건축인으로 더욱 놀랐던 것은 그 거대한 타워가 무력하게 붕괴하는 모습이었다. 필자는 그 뉴스를 밤늦게 차안의 라디오로 들으면서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그저 부분적인 손상 정도를 과장해 묘사하는 것이니 했다. 집에 들어와 막상 TV에서 쌍둥이 빌딩의 붕괴를 보면서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아무리 비행기와 충돌하더라도 저렇게 짧은 시간에 힘없이 무너지다니!

건축과에 적을 둔 학생으로서 타워링 영화를 보고 나서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저 영화는 엉터리야. 초고층 건물이야말로 화재나 지진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단다. 온갖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여러 단계로 안전을 도모했기 때문이지." 물론 건축학도로 상식 선에서 알고있던 지식을 떠벌린 것이었다. 그러나 바벨탑의 전설이 말해주듯 인간이 세운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무역센터의 참화는 보여주었다. 생각해보라! 그 어느 누가 그 건물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건물 설계와 구조와 설비에 관련했던 그 많은 이들이 별의별 재난의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했다 하더라도 테러, 그것도 비행기가 와서 정면 충돌하는 테러는 아마 변수에 넣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1978년 학부 수업 때 작고하신 김희춘 교수님으로부터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대해 처음 들었다. 미노루 야마자키라는 일본계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것, 당시로서는 흔치않은 쌍둥이 빌딩이라는 것, 외벽의 디자인이 그대로 골조가 되고 있다는 것 등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후 사진에서 그 우아한 자태를 보았고 또 수직의 창살이 지상에서 고딕의 뾰족 아치 모양을 만들며 내려오는 것도 알았다. 10년 전 뉴욕에 가서 맨하탄의 야경을 직접 보았을 때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은 유독 눈에 띄었다. 맨하탄에서도 건물이 밀집한 쪽이 아니라서 두 타워는 발근으

로 눈에 띄며 장관을 만들고 있었다. 작년 봄 맨하탄 건너편 뉴저지에서 식구들과 배를 타고 앨리스 아일랜드로 가면서 애들에게 트윈 타워를 가리키며 이것 저것 설명해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건물의 붕괴라는 대 재난은 엄청난 인간 생명의 멸실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경악과 슬픔을 주었다. 비록 내 가족, 내 친척이 아니더라도 생생한 화면에 비쳐지는 인간의 울부짖음은 어느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지구상에 왜 갈등과 충돌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가? 더불어 인간 생명의 상실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건축인에게 잘 알던 건물의 비극적 사라짐 역시 마음 아픈 사건이다. 두 타워가 없는 뉴욕은 앞으로 몹시 허전한 풍경을 연출할 것이다. 고통스런 참극을 연상시키면서.

초고층 타워는 현대 기술문명의 산물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부와 힘과 기술을 상징하는 기념비로 일컬어졌다. 일찍이 고대부터 높은 탑을 세우기를 획구했던 인간의 열망은 20세기에 인공의 공중 도시로 실현되었다. 인간의 권력 의지와 욕망의 가시적 실현물이기도 한 그것은 건축 뿐 아니라 문명의 개가이기도 하다. 이제는 너무 흔해서 일상화되기까지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기적같은 현상이고 아직도 바라보는 이에게 경외감과 감탄사를 유발케 한다. 최근의 첨단 과학 기술에 힘입어 그것은 더욱 정교해지고 지능적이 되고 있다. 마치 거대한 항공기나 잠수함, 혹은 로켓처럼 초고층건물은 그 자체가 거대하고 복잡하며 고도로 직접화된 기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거대해질수록,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자동화될수록 더욱 편리해지고 안전해지고 효율적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욱 취약해지고 허술해지며 인간의 제어 능력을 떠난 시스템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건물에 있어서 설비의 자동화는 건물의 관리자나 사용자의 선의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범죄 영화에서 흔히 보듯이 첨단화된 시스템은 적에게 아주 좋은 공격의 수단을 제공하는가 하면, 우호적인 환경에 길들여져 있던 내부자이겐 순식간에 속수무책의 공간으로 변질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정보의 네트워킹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컴퓨터 해커의 침투나 Y2K 같은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무방비 상태에 피해가 대규모화될 확률이 커지는 것과 같다. 혹은 첨단의 장비가 장착된 항공기가 유독 하이제커에게는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의 우발적인 총알 한방은 곧바로 비행기 추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술의 고도화는 한편으론 치명적인 문명의 아킬레스건을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자동화와 네트워킹화는 무조건 환영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우리의 도시를 아비규환의 장소로 만들 수 있다. 정전, 급수 중단, 교통 마비, 통신 두절, 에너지 공급 차단, 이것 중 어느 하나도 현대 메트로폴리스에 끔찍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문제는 대도시가, 혹은 세계 전체가, 비유하자면 하늘에 뜬 대형 점보기와 같은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누군가는 위험사회라고 명명했다. 카오스이론에서 아마존 유역의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개 짓이 아시아 대륙에 태풍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비슷하게 대수롭지 않은 작은 사고가 대형 참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도시에 전기와 급수가 중단됐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럴 때 가장 취약한 것은 고층의 인텔

리조트 빌딩 주택일 것이다. 최근에 서울에 지어지는 40층 높이의 주상 복합 빌딩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 40층에 사는 거주자가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쓸 수 없고 불이 안 들어오고 전화가 불통이며 한 겨울에 난방이 끊어졌다면, 그리고 물이 안 나오는 것은 물론 화장실의 수도도 안 된다면? 그래서 밥 한끼 지어먹을 수도 없고 변소도 갈 수 없다면 그곳이 바로 생지옥일 것이다.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곳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장소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물론 생각하기도 싫고 결코 있어서 안 되는 사태이겠지만 이번 무역센터 참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무작정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진화론자는 공룡이 고도로 자신을 발전시킨 결과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망했다고 말한다. 역사가 중에는 지구상에서 고도의 문명들이 붕괴한 것은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만큼 내적으로 취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합리화되고 효율화되는 한편, 체제와 구성원은 허약해지는 것이 그리 낯선 일은 아니다.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던 우리 근대 문명도 실상 그런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아마도 이번 무역센터 참사는 건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형 건축물의 안전이나 보안 문제가 계획이나 설계, 그리고 시공에 큰 관건으로 떠올라 올 것이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감시망과 보안 체계,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나 공간에 대한 연구가 현안으로 연구될 것이다. 이는 당연히 건설비의 증가를 뜻한다. 유비무환이라고 다양한 대비책과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한계를 안은 채 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앞서 보았듯이 복잡화, 고도화, 자동화가 근본적으로 내포하는 취약점 때문이다. 둘째, 미래의 사태와 변수를 모두 감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축구 경기장을 설계하던 건축가가 오늘날 홀리건들의 난동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이치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렇다고 근대의 기술문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마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지구촌을 모든 인류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우호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광기와 욕망을 잠재우고 다시 성찰과 윤리와 절제가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다. 타자의 원망과 분노를 밥그릇 삼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계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상생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오늘의 사태는 가르쳐 준다. 둘째로 위와 관련하여 미친 듯이 질주하는 오늘의 삶의 방식, 특히 자본주의와 기술 만능주의에 적절한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다. 하이데거는 일찍이 근대 문명의 사악성과 맹목성을 경고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 이해와 무관한 다른 일에 주의와 가치를 둘 것을 요청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오늘의 환경론자들이나 반세계화론자들의 주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건축에서도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건축가는 항상 바벨탑의 신화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작금의 건축가의 오만과 자기 인정 욕구 대신 겸손과 윤리 의식이 새로운 가치로 요구되는 시대이다. 환경과 생태 문제, 생명과 건강 문제, 에너지 문제, 자원 문제, 인간의 심성과 행복, 공동체성을 외면하고서 21세기의 건축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참화는 탈근대 문명 시대의 건축이 가야할 길에 대해 깊이 숙고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